

신안군, 전출 공무원 교육비 환수 검토

'공무원 양성소' 오명...해마다 10여명씩 타 지자체로 옮겨가 최소 연수 5년 지나면 전출 신청...군 "이기적·무책임한 발상"

매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공무원이 증가해 '공무원 양성소'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신안군이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비 환수를 위한 검토에 들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안을 떠나 다른 지자체로 옮겨간 공무원 수가 64명에 달한다. 해마다 10여 명씩 전출 가는 셈이다.

신안군 공무원들의 타 기관 전출은 5년 이상 근무자면 가능해 최소 연한을 채운 젊은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매년 증가 추세인 전출 희망자 대부분은 저마다 사연을 갖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전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외면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신안군은 신규 공무원이 임용되면 공직자 소양교육,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교육비 환수 검토는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전출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이 기간 동안 지원된 교육비를 환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국방부가 국정감사에서 자퇴하는 사관생도가 급증하면서 생도 양성 비용 환수를 검토 중

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사관생도 중 질병·사고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진로를 변경하려는 자학년을 제외하고, 자퇴할 때에는 양성 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의견을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이 근무 여건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데 쉽다는 점을 이용해 입사했다 전출 갈 수 있는 최소연수만 지나면 나가려 한다"면서 "본인이 나가면 남은 공무원들이 떠안고 업무를 해야 하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에서도 자퇴 생도들에 대해 교육비 환수를 검토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이 또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검토하게 되었다"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해남군농업기술센터 전문연구위원이 고구마 시범포에서 고구마 육종을 위한 꽃 화분을 채취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백년에 한번 피는 '고구마꽃' 보러오세요

해남미남축제 주인공으로 출격 11월 1~3일 두륜산 도립공원

올해 전남 해남미남축제의 주인공으로 '해남고구마'가 출격한다.

다음 달 1~3일 해남군 두륜산 도립공원에서 열린 미남축제에서는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해남군 대표 농특산물인 고구마 주제가관이 운영된다.

고구마주제관에서는 조직 배양에서부터 무병묘로 배양되는 해남고구마의 단계별 생장 과정과 주요 고구마 품종, 고구마를 활용한 가공품 등 해남 고구마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백 년에 한 번 핀다는 고구마꽃을 볼 특별한 기회도 있다. 나팔꽃과 비슷한 모양의 고구마꽃은 우리나라의 기후에서는 꽃이 피기 어렵고 일반 농가에서도 거의 볼 수 없어 '행운의 꽃'

이라고 불린다.

축제장에서 볼 수 있는 고구마꽃은 신종종 육종을 위해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시범포에서 키우는 고구마로, 고구마꽃의 특성에 맞춰 관상용으로 개량한 고구마꽃이다.

해남고구마는 조직배양 단계에서부터 무병묘로 배양되는 해남고구마의 배양 단계별 모습을 전시해 해남고구마만의 차별화된 생육환경을 보여줄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호풍미, 소담미, 진술미 등 국내에서 육성된 고구마 품종 전시도 하며 고구마 말랭이와 아이스고구마, 고구마빵 등 다양한 입맛에 맞춘 먹거리로 진화하는 고구마의 변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암군, 개발이익 공유 '햇빛·바람 연금 조례' 제정 추진

주민참여 의무화·집적화단지 구제화

영암군이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의 주민참여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영암형 햇빛·바람 연금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영암군은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는 지역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군민과 지역이 모두 상생·동행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난 개발과 자연경관의 지나친 훼손 방지, 햇빛·바람연금 등을 통한 군민 소득향상을 담고 있다.

특히 영암군 관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업의 집적화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40㎡ 이상 규모의 발전사업의 경우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40㎡ 이하는 발전 용량별 주민참여 의무비율과 심의 과정 등을 규정했다.

또 영암의 현실 여건에 맞는 배당금 산정과 대불산단 등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뿐만 아니라 전력을 소비할 수 있는 기업유치 등의 내용도 담는다는 계획이다.

일률적인 배당이 이뤄질 경우 금액이 소액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 청년, 영유아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발전을 통해 얻은 신재생에너지를 현장에서 소비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

과 지방세 세입 효과 등 부수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영암군은 영암읍에 이어 조만간 삼호읍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배당금 등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한 뒤 내년 초 조례를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조례는 행정발의로 진행하지만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주민발의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제 우리 영암군도 주변 지역과 같이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며 "이익공유제의 준비가 신재생에너지 연금시대의 유의미한 첫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31일부터 '보배섬 국화축제' 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복합문화센터' 착공

진도군이 오는 3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도개 테마파크, 향토문화회관, 철마공원 일원에서 '2024 보배섬 국화축제'를 개최한다.

"나랑 같이 갈래! 진도 국화정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화 13만본으로 추억, 치유, 희망, 농산물 등을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

7개 정원에 대형 조형국, 분재국, 현애국, 대국 등 약 500점의 다양한 국화작품이 전시된다.

올해 행사는 화단국 11만본을 지역 36 농가에서 위탁 생산해 전시회 규모가 작년보다 30% 이상 확대됐다.

군이 농가에 위탁 생산하고 있는 국화와 초화류는 연간 89만 본으로 전국에서 최대 규모다.

농가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사계절 꽃피는 진도'와 가을 국화축제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77억 투입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완도군이 최근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어울림 복합문화센터'를 착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어울림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개축에서 신축으로 변경됐으며 완도를 중앙시장 부지에 추진된다.

이 사업에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총 77억원이 투입된다. 복합문화센터는 연면적 1430㎡, 지하 1층, 지상 3층에 상가와 식당, 주민·상인 휴게공간 등 주민 커뮤니티센터 기능을 갖춘 시설로 조성된다.

전주와 통진주를 이설 중이며 토목공사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후 기초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완공은 2025년 11월 예정이다.

이기석 완도군 지역개발과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어울림



중앙공원 내에 건립할 '어울림 복합문화센터' 조감도. 복합문화센터에 들어설 것이다"며 "센터가 완공되면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시, 28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대형사고 예방·생활불편 해소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가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목포시와 목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민원 빈번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나 타인의 토지 및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 주차된 자동차 ▲불법 개조(튜닝)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배기 소음이 심한 이륜차 ▲검사 미필 자동차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이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불법이륜차 민원 증가에 따라 소음기 개조 등 불법(개조)튜닝, 안전기준 위

반 자동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영구출국 외국인 명의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해 운행하는 차량 등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원상복구 및 정비 명령을 내리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엄격히 처리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법자동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시민 여러분들도 불법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